

코로나 사태, 앞으로가 '더 걱정'

중경제 위축 → 수출 부진 부품차질 '중기에 치명타'

韓 중소기업 對中 수출비중 22.9%
중국발 부품공급 차질로 직접 영향
대기업 생산 감소 '2차 파급효과'

'코로나19 확산→중국 성장 위축→
한국 성장 둔화→중소기업 수출 부진
→중소기업 조업 위축→중소기업 경기
둔화 및 고용 축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가 한국 중소기업들에 더욱 치명적일 것이라 분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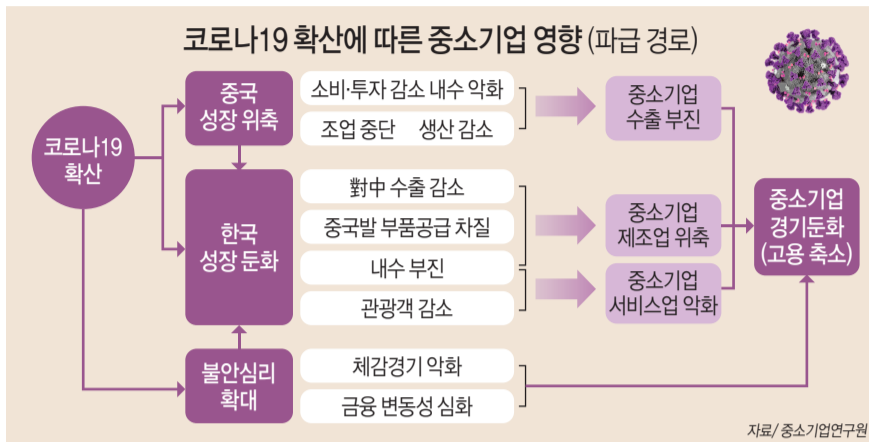
중국에 대한 한국 중소기업 수출 비중이 지난해 기준으로 22.9%에 달해 코로나19로 인한 중국의 성장 위축이 우리 중소기업 수출에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숙박업과 음식점업과 같이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위하는 서비스업은 중국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외국인 관광객 위축, 내국인 수요 감소 등으로 피해가 집중될 것이라 우려다.

이에 따라 전염병 확산에 따른 과도한 불안감을 완화하되 경제적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미시적·거시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은 25일 펴낸 'KOSBI 중소기업동향'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 이슈 리포트에서 코로나19가 대내외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과거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세계GDP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



중이 2002년 당시 4.3%에서 2019년 현재 16.3%까지 늘고, 세계무역에서의 중국 비중 역시 4.7%(2002년)에서 11.8%(2018년)로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중국 경제가 악화될 경우 과거보다 글로벌 경제에 더 큰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 비중도 2002년 당시 14.6%에서 지난해엔 25.1%까지 크게 늘었다.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 관광객 비중 역시 같은 기간(2019년은 1~11월 기준) 10.1%에서 34.4%로 크게 증가했다. 그만큼 중국이 국내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예전보다 훨씬 커진 현실에서 불거진 코로나19 사태가 더 많은 충격과 파장을 가져올 것이라 관측이다.

중기연구원 정유탁 책임연구원은 "중국에 수출하는 우리 중소기업의 경우 반제품, 부품·부품품, 자본재 등의 비중이 높아 중국내 생산활동 위축과 수출 부진이 심화될 경우 한국 중소기

업 수출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이었던 중소기업의 대중국 소비재 수출 역시 그동안 꾸준히 확대돼 온 터라 이번 영향으로 타격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중국에서 원재료나 부품 등을 공급하던 국내 제조 중소기업들 역시 악화가 불보듯 뻔하다.

한국의 대중국 소재·부품 수입 비중은 2001년 당시 9.3%로 3위였지만 중국과의 연계성이 갈수록 강화되면서 지난해의 경우 30.5%까지 올라가며 전세계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유탁 책임연구원은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하청·협력 관계 등을 감안할 때 코로나19의 악영향에 따른 중국발 부품공급 차질로 직접 영향을 받는 동시에 대기업 생산 감소에 따른 2차 파급효과도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사퇴

"소상공인 운동 새로운 길 위해"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사진)이 임기 1년을 앞두고 사퇴했다. 다음 행보는 총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5일 서울 동작구 연합회 사무실에서 '제7차 정기총회'를 열고 "최 회장이 소상공인 운동의 새로운 활력 모색을 비롯한 일선상의 이유로 사퇴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이날 총회에서 사퇴를 전하는 신상발언에서 "소상공인을 외면해 온 정책환경을 소상공인을 우선하는 정책환경으로 바꾸고, 더 이상 '소상공인도 국민이다'는 절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금보다 더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이를 위해 정치권의 변화와 소상공인 운동의 새로운 전환이 요구되는 만큼 소상공인기본법을 전면화시키고, 수년간 노력한 사람으



로서 이전 소상공인운동의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 한발자국을 내딛으려 한다"고 덧붙였다.

최회장은 한

국인턴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이사장과 중소기업중앙회 이사 등을 거쳐 전국소상공인살리기운동본부 대표를 역임한 후 2014년부터 소상공인연합회 초대회장을 맡아 현재까지 연합회를 이끌어왔다.

최 회장은 조만간 향후 거취와 관련된 개인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장의 사퇴로 소상공인연합회는 김임용 수석부회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운영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도구공간, 기업 3곳서 시드투자 유치

자율주행 순찰 로봇 '디-봇 라이트' 내달부터 코엑스에서 야간 자율 순찰



도구공간의 자율주행 로봇이 야외주행을 실시하고 있다. /도구공간

자율주행 로봇을 개발하는 도구공간이 퓨처플레이, 산은캐피탈, 신한캐피탈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고 25일 밝혔다. 투자 규모는 비공개다.

도구공간은 실내외 모두 주행이 가능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로, 디자인에서부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공지능(AI) 서비스까지 자체적으로 개발해 융합 솔루션을 만들고 있다.

지금까지 도구공간은 자체 개발한 야외용 정밀위치인식 기술과 환경 인지 기술, 특수 목적용 로봇 플랫폼 납품을 통해 유진로봇, SK텔레콤, 현대모비스, LG전자 등으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2019년에는 CJ오벤터스 프로그램을 통해 CJ대한통운 내 자율주행 물류 로봇 시연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도 했다.

도구공간은 최근 월드트레이드센터(WTC)와 협약을 맺고, 3년간 연구개발한 자율주행 순찰 로봇 '디-봇 라이트(D-Bot LIGHT)'를 오는 3월부터

코엑스 내 야간 자율 순찰 서비스에 제공할 예정이다.

김진호 도구공간 대표는 "지금까지 40건이 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대기업들에 기술을 제공해왔다"며 "이번 투자유치는 도구공간이 보유한 기술들을 통합해 더욱 나은 품질의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구공간은 향후 순찰, 물류 로봇 외에도 야외 배송 로봇으로 사업 범위를 확장하고, 인간-로봇 간 상호 작용, 다수의 로봇 간 협업 등 로봇 분야 최신 기술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

중소단체, 상생법 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기술 빼앗겨도 소송 엄두도, 기업활동 전념하게 개정을"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계가 국회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개정안을 2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일감을 주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수탁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할 경우 더욱 제재를 강화하는 상생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의 문턱을 반드시 넘어 공정을 위한 원칙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과 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19일 관련 세미나를 갖고 상생법 개정안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는 2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들이 마음놓고 기술개발과 기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상생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가운데)이 25일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중기중앙회와 함께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상근부회장들이 함께 했다.

중기중앙회서승원 상근부회장은 긴급 성명서를 대표로 낭독하면서 "거래 관계에서 '을'인 중소기업은 기술을 빼앗겨도 냉기습만 앓고 있고, 침해사실을 입증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비용 때문에 소송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면서 "불공정 행위나 기술탈취 등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정당한 처벌을 하자는 상생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1년 넘게 계류돼 있어 안타깝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 부회장은 "(대·중소기업)상생은 원칙이 꼭바로 서야 가능하다. 원칙이 분명하지 않으면 상생도 어렵다. 기술탈취 역시 분명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국회에 계류된 상생협력법을 여야가 합의한 만큼 우선 통과시켜놓고 보완해야 한다. 대기업들이 우려한 만큼의 걱정스러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요기요, 레스토랑 운영정보 '한눈에'

'요기요 사장님포털' 오픈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국내 대표 배달앱 요기요가 레스토랑 운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요기요 사장님포털'을 오픈하고 레스토랑 파트너들과의 상생 전략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요기요가 새롭게 선보이는 요기요 사장님포털은 평소 바쁜 사장님들을 위해 레스토랑 운영 알짜 정보는 물론 그동안 궁금했던 점들을 모두 한 곳에서 손쉽게 만나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종합 포털사이트다. 로그인 없이 이용 가능하며, 요기요에 입점하지 않은 사장님들도 누구나 방문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요기요 사장님포털은 1년 365일 바



요기요가 레스토랑 운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요기요 사장님포털'을 오픈했다.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쁜 레스토랑 파트너들을 위해 쉽고 간편하게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매장에 효율적인 운영과 매출 증대를 위한 각종 노하우와 함께 창업과 요기요 서비스가 궁금한 사장님들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도록 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